

17/01/08(주) 주일예배 / 제목 : 당신의 소망은 어디에 있나요? (시 39:5~7) p.831

(5)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6)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니이다 (7)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39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소망이 어디에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 / 이 세상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어려움 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눈을 찧고 보아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에는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말 못할 과거의 어려웠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삶의 소망을 잃어버렸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까지도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악착같이 살아 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기에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해도 몇 시간이 지나면 안개가 사라지듯이 그런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러저러해서 잘됐다 하는 얘기를 들어도 그렇게 쉽게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야기는 나와는 너무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형의 말을 듣기 보다는 현재도 어렵지만 그 어려움을 지금도 잘 극복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말을 듣기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향을 갖는 이유는 대다수 사람들이 자기는 늘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진행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다하면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과정의 슬픔과 아픔과 실패가 있었을 지라도 그 어려운 과정을 극복해 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왠지 모르게 나와 비슷한 동료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극복의 과정을 보게 되면 나도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위로와 격려까지 받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의 경우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도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정치인들을 보면 하나같이 자신의 어려웠을 때의 이야기와 그것을 극복한 이야기들을 미담화 시켜서 나누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훨씬 정서적인 공감을 쉽게 얻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다윗** 자신의 어려웠을 때의 이야기를 회상하며 결론을 내리기를 자신의 소망은 주님께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은 산전수전을 다 겪고 고통의 인내 속에서 나온 고백인 것입니다.

그는 이미 어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왕으로서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으로 등극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의 과정이 필연적으로 따라왔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물매 돌 하나를 가지고

거대한 장성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큰 역사를 이루었지만 바로 그 일 때문에 사울 왕에게 시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10년이 넘도록 긴 기간을 쫓기며 이리저리 방황하고 고통을 당하며 도망 다니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미친사람 흉내까지 내가며 목숨을 연명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긴 고통의 세월 끝에 결국 그는 왕위에 오릅니다.

하지만 밧세바와의 불륜사건으로 큰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강간하고 압살롬은 암논을 죽임으로서 보복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받아서 왕궁을 떠나야 하는 어려움까지 겪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인구조사를 했다가 많은 백성이 죽게 되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저러한 일로 결국 다윗이 고통 중에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망은 오로지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깨달은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기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 본문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3가지는 무엇인가?

1. 하잘 것 없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5절)

5절을 보십시오. (5절)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 이는 주님께서 나의 삶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고, 그저 나의 삶의 기한이 이 손바닥 넓이만 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피부로 느껴지시나요?

나름대로 인생의 쓴 맛을 경험하신 분들은 다윗과 같은 느낌을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매우 제한된 삶이라는 것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우리의 생명의 호흡을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가 없고,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삶의 영역을 한 치라도 더 넓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또다시 일어나서 낙망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열심을 낸다는 것은 주어진 환경을 극복해가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손바닥만한 삶으로서 한계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한계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목회자는 비교적 한계상황 속에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를 개별적으로 만나는 성도들은 대부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삶의 시간과 계획 속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에 안타까울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은 손바닥 넓이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옴기를 보면 ‘옴’이라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정말 그는 믿음이 좋았고 바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아서 큰 부를 누리고 있었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단의 시험으로 인하여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재물이 무너지고 자녀들을 일거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까지 그를 떠나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몸까지 병들게 됩니다.

게다가 위로하러 온 친구들마저도 위로한답시고 말들을 하지만 위로는커녕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옴은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욕하거나 한탄하거나 원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옴은 친구들이 자기에게 불의했다고 말하자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며 반박하였습니다. “내가 뭐 잘못된 게 있느냐? 나는 의롭게 살았다” 라고 친구들에게 항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공방을 거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자연속의 신비함과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의 오묘함을 보여주시자 옴은 기가 탁 막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욘40:4)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랴 주께 대답하오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 말은 내가 이제까지 말하고 사는 것이 정말 부끄러워서 내가 내 이 손으로 내 입을 가리워야지 내가 이제까지 말한 바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얼굴을 들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적은 없었나요? 정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손바닥만하며 그 손바닥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미미하여 없는 것 같고, 그나마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하잘 것 없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1. 하잘 것없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5절)

2. 헛된 일에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둔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지경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헛된 일에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사람은 그림자와 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모릅니다. 그림자가 무엇입니까? 실체가 아닌 허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림자와 같이 다닌다는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부지런히 하고 수고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무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실례를 볼까요? 역사를 보면 탁월한 영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알렉산더’를 보십시오. 그는 기원전에 살았던 사람으로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기원전 230년쯤에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인도까지도 가서 점령하고 자신의 대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20살 때 왕이 되어서 33살에 죽었습니다.

20살에 왕이 되서 12년 8개월 동안 재위하고 33살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이 어린 나이에 그는 엄청난 대업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전 세계가 하나의 제국이 되고 전 세계가 연결되어 위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그의 삶에 있어서 그가 가장 고민 한 것은 그가 앞에 있는 나라를 정복하지 못할까 이런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당성이었습니다.

내가 과연 대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나라를 점령하고 승리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 과연 내가 하는 일이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16살 때 아리스토텔리스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문학이나 철학이나 윤리나 정치까지 모든 것을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대로 된 삶의 기초를 갖춘 사람으로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대 제국을 거느린 큰 대왕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당성이었습니다.

내 군사들이 죽어가고 그들의 식솔들이 눈물과 비탄에 빠지게 될 것이며 또 상대 적국의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인데 과연 그것이 옳으냐가 그에게 있어서 큰 갈등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정복의 야욕에만 불타 있었다면 그는 그런 생각조차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정복자들이 결국 환상 속에 시달리다가 마지막에 괴로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과연 옳은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과연 실상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허상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림자 같이 다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분주함이 마치 무엇을 이룬 것처럼 착각하게 하지만 우리의 분주함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고 거룩하고 진리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벗어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뜨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온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는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분리라는 것은 인생의 죽음이었습니다. 전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곤고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틀어진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맡겨놓으면 비틀어진 채로 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뭔가 부지런히 애쓰는 것 같아도 그 애쓰는 것이 헛된 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수고인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평생을 돈 버는 일에 몰두하다가 진작 자기는 제대로 한 번 부귀영화를 누리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부자는 들판에 소출이 너무 가득해서 자기를 위하여 더 큰 창고를 짓고 부귀영화를 누리하고자 합니다. 그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생각은 하지 못하고 창고를 더 지어서 내가 그냥 평생동안 먹고 마시고 누리자라는 생각 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리고 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고 반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는 지혜로운 반응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저 오늘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면 그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지만 한편으로는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일 꼭 있을 것이다' 라고 누가 주장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준비하고 무엇인가를 쌓아두어야 하지만 우리는 또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 주어진 지금도 충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준비 하되 내일의 모든 것을 맡기고 현재를 되는데로 살아서는 안된다라는 뜻입니다. 내일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 1. 하잘 것 없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5절)
- 2. 헛된 일에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합니다. (6절)

3. 그렇지만 결국 우리 인생에 회복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7절)

7절을 보십시오.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삶이 결국 손바닥만한 인생이어서 모든 것이 허사이고, 또한 누가 취할지 모르는 재물을 위하여 분요 롭게 다니는 어리석은 인생이지만 결국 우리 인생에 회복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참된 길과 진리를 비로소 회복하고 찾았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해진 바른 목표를 확신했다면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경건생활에 힘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최대한으로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내세에서의 삶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새로운 삶의 소망도 찾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변화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죽이는 것에 동참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 평생을 빛진 자의 심정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소망을 찾은 사람들을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삶의 소망이 생기면 그때부터 우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은 주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는 가야할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헛된 일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한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께 소망을 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잘것없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게 하고(5절), 헛된 일에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하며(6절), 결국엔 우리 인생에 회복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7절),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부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올해 한 해도 복되고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핵심 :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요약정리 / 다윗의 고백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1. 하잘 것 없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5절)
2. 헛된 일에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합니다. (6절)
3. 그렇지만 결국 우리 인생에 회복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7절)